경영유의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농협은행

2. 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4. 1. 11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 용
기 관	경영유의 1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

(1)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

㉮ 부실위험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추정방식 강화

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시 과거 부도율 및 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상황을 반영한 부도율(Probability of Default, 이하 'PD') 및 부도시 손실률(Loss Given Default, 이하 'LGD') 등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

기대신용손실 추정을 위한 PD는 최근 실측치보다 낮고 회수율은 높게 나타나는 등 부실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대신용손실에 기반한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

따라서 은행은 부실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대신용손실 추정 요소(PD, 회수율 등)가 최근 부도율 및 손실률 실측치를 하회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

㉯ 미래전망 예측모형 적정성 강화

은행은 과거 실측부도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모형화(이하 '미래전망 예측

모형')하고 미래 거시경제 시나리오별로 PD를 추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PD(이하 '예측PD')를 대손충당금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,

소매 익스포져의 경우 리스크특성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익스포져, 기타 소매 익스포져, 적격회전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익스포져의 실측부도율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도,

전체 소매 익스포져 대상으로만 미래전망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예측PD를 추정하고 있어 소매 익스포져별 실측부도율 수준 등 리스크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예측PD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

미래전망 예측모형 개발시 소매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에 따라 예측PD를 세분화하여 추정하시기 바람